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8) 두산아트센터



지난 2007년 '아트 인큐베이팅'을 모토로 개관한 두산아트센터는 두산갤러리의 컬렉션을 내부 곳곳에 전시해 품격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서울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트 인큐베이팅’ 모토... 창작자 끼·재능 키워주는 등용문



620석 규모의 연극홀은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컬 전문 극장이다. (두산아트센터 제공)



‘액터 뮤지션’(Actor Musician)이란 새로운 장르를 보여준 뮤지컬 ‘모비딕’

지난 7월19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의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 이날 230석에 불과한 가변형 소극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국내 최초로 제작된 액터-뮤지션(Actor-Musician) 뮤지컬 ‘모비딕’(연출 조용신)의 첫 무대였다.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의 장편소설 ‘모비딕’(백경·Mobi Dick)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공연 기간 한달내내 객석점유율 80%를 기록했다.

‘모비딕’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기존의 뮤지컬 형식을 깬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이다. 7명의 배우가 연기, 노래는 물론 연주까지 ‘접수’한 뮤지컬은 국내에선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공연계의 찬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공연장과 연출가가 빚어낸 ‘환상의 하모니’에 있었다. 두산아트센터는 연습실과 워크숍 무대를 지원해 연출가의 ‘실험’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모비딕’은 두산아트센터(이사장 박용현)의 ‘컬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두산아트센터는 지난 2007년 모기업인 두산그룹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아트 인큐베이팅’을 모토로 문을 열었다. LG아트센터(본보 8월 11일자 보도)와 함께 기업 메세나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미션’은 사뭇 다르다. LG아트센터가 ‘검증된’ 스타예술가들의 무대라고 한다면 두산아트센터는 ‘재능있는’ 작가들의 ‘꿈’을 키워주는 산실이기 때문이다.

두산아트센터의 모태는 1993년 설립된 연극홀이다. 두산그룹 창업주인 고 박두병 회장의 호(蓮菴)에서 따온 연극홀은 창작자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키

2007년 연극홀 620석으로 넓혀 명품 뮤지컬 공연

발로치는 피아노·특급호텔 연상 여자화장실 명물

워주는 등용문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다.

두산아트센터가 제2의 번신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10월, ‘새로운 문화운동의 메신저’를 내걸고 250억원을 들여 400석 규모의 기존 연극홀을 620석으로 넓히고 소극장 스페이스 111, 두산갤러리를 갖춘 멀티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했다. 중극장 규모인 연극홀은 리모델링 당시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음향과 무대, 조명, 객석 등을 설계해 최적의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일본 고토부키의 제품인 객석의자는 개당 가격이 11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고가인데다 객석간 거리도 1.3m로 넓다. 그동안 ‘텔미 온 어 선데이’(Tell me on a Sunday), ‘컴퍼니’(Company), ‘년센스’, ‘스프링 어웨이크닝’ 등 명품뮤지컬들이 연극홀을 거쳐갔다.

소극장인 스페이스 111은 두산아트센터의 아이콘이다. ‘아트 인큐베이팅’의 미션을 실천하는 아트랩(Art Lab)이자 예술가들의 창작열을 북돋우는 ‘팩토리’(factory)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비딕’을 비롯해 ‘숲속으로’, ‘천변카바레’, ‘디 오써’(The Author), ‘하너블’, ‘양태서 솔로드림’ 등의 연극과 음악은 3만여

명의 ‘두산마니아’를 공연장으로 끌어들이었다.

다른 공연장에서 보기 힘든 실험적인 작품 라인업은 차별화된 기획력에서 나온다. 지난해의 기획예산은 약 200여억 원. 감성감독, 김요안 프로듀서 등 4명의 기획자들은 독창성과 진정성이 엮보이는 ‘무서운 신에’들을 찾아내 이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 젊은 소리꾼 이자람의 ‘사천가’, 언어연극의 새 지평을 연 제12연어스튜디오 연구소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연출 성기웅),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허문 ‘디 오써’(The Author) 등은 두산아트센터가 건재한 ‘보석’들이다. 개관 이후 ‘아트 인큐베이팅’을 거쳐 스페이스 111에 오른 공연은 약 50여 편. 다른 아트센터에서 보기 힘든 ‘창작하는 공연장’의 진가를 보여준다.

두산아트센터 김요안 프로듀서는 “많은 공연장들이 유명예술가들의 ‘현재’에 관심을 갖는다면 두산아트센터는 신진예술가들의 잠재된 ‘미래’에 눈을 돌린다”면서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찾아내기 위해 1년에 100여 편의 공연을 관람한다”고 말했다. 두산아트센터는 두산갤러리(면적 227㎡)를 통해서

도 예술가들의 든든한 서포터즈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아트마케팅을 기치로 내건 ‘두산 레지던시 뉴욕’(큐레이터 정진우)은 두산아트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작가들에게 뉴욕 첼시의 아파트와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뉴욕레지던시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1기 입주작가 3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4명이 ‘뉴욕행’ 티켓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공연예술가에게 창작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연극예술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두산아트센터는 풍부한 콘텐츠 만큼이나 하드웨어 면에서도 색다른 매력을 풍긴다. 올해 국내 최초로 그랜드 피아노 건반 88개에 LED와 프로그래밍된 음을 넣어 실제 피아노 음을 내는 ‘발로 치는 피아노’를 설치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특급호텔을 연상케 하는 여자화장실은 명품중의 명품. 관객의 70%가 여성임을 고려해 재개관 당시 좌변기를 53개로 늘리고 파우더 룸까지 갖춰 화제를 모았다.

두산아트센터 정진우 큐레이터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서울 뿐 아니라 광주, 부산 등 지방의 작가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면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꾸준히 추구해가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는 캐나다 내추럴팩터스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인공색소
자연에서 배운다고 사랑으로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jepharma.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KHSA
심의를번호 | 2112073